

2007年 2月

碩士學位論文

중국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香蘭

중국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 연구

A Study of Spelling Differences betwee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2007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香蘭

중국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 연구

指導教授 강 옥 미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香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이성연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강옥미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강희숙 인

2006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3. 선행연구 검토	2
1.4. 연구대상 및 방법	4
제2장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규정의 변천	5
2.1. 조선어 표기법의 변천	6
2.2.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	9
제3장 음운 현상 및 음운 표기의 차이	11
3.1. 음운 현상 표기 차이	11
3.1.1.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표기	12
3.1.2. 경음화 표기	13
3.1.3. ㄴ-첨가 표기	18
3.2. 음운 표기 차이	19
3.2.1. 자음 표기	19
3.2.2. 모음 표기	24

제4장 형태 표기의 차이 34

4.1. 부사형 어미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표기 차이 34

4.1.1. ‘ㅂ’ 불규칙의 활용 34

4.1.2. 일반 동사의 활용 37

4.2. 사이 ㅅ 표기 차이 39

4.3. 접미사 ‘-이’, ‘-히’의 표기 차이 43

4.3.1. 부사 파생접미사 ‘-이’, ‘-히’의 표기 43

4.3.2. 어근+ 명사 파생접미사 ‘-이’의 표기 44

4.3.3. 어근+ 부사 파생접미사 ‘-이’의 표기 45

제5장 띄어쓰기의 차이 46

5.1. 명사 띄어쓰기 표기 차이 46

5.1.1. 의존명사 띄어쓰기 47

5.1.2.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띄어쓰기 50

5.2.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51

제6장 외래어 표기의 차이 53

6.1. 인명·지명의 외래어 표기 차이 55

6.2. 자음 표기 차이 56

6.2.1. 어말 무성파열음 /k, t, p/ 표기 56

6.2.2. 어두 /s/ 표기 57

6.3. 모음 표기 차이 57

6.4. 마찰음 · 파찰음 + 모음 표기 차이	60
6.5. 받침 표기 차이	61
6.6. 기타	63
 제7장 결론	 66
** 【附 錄】	
** 【參考文獻】	

ABSTRACT

A Study of Spelling Differences betwee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Xianglan Jin

Adviser: Prof./Ph. D. Ongmi Kang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Ethnic Korean Chinese have lived in China over fifty years without any contact with South Koreans until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2. Due to 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Chinese Korean language (Joseoneo, the Korean language used by Korean Chinese) and the South Korean language have shown many differences in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spelling system. Chinese Korean and its spelling have followed the norm of North Korean. Since Chinese Koreans are living in the multiracial country of China, their language has also been influenced by Chinese and minority group languages. Therefore, Chinese Korean shows great differences in phonology, spelling and vocabulary than South Korean.

Korean Chinese have been using 'the Spelling System of Chosun Language' sinc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e to frequent exchange with South Korea, South Korean has enormously affected Chinese Korean.

Therefore, ethnic Korean Chinese people are now experiencing double difficulties since they have to use Chinese Korean spelling correctly as well as borrowing new Korean vocabulary. At this point, it is timely and valuable to study spelling differences betwee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To show the spelling differences, I takes the same words from "Chosun Language Dictionary"(1992~1995) published by Language Research Institute of Yanbian and "The Great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1999)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 try to analyze the orthographic differences of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in phonology, phonemes, morphology, foreign loanwords and word spacing.

Each chapter is devoted to a distinctive topic on spelling differences betwee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ader, in Chapter 2 I summarize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spelling system of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Chapter 3 discusses the spelling differences of phonological phenomena and phonemic spelling. First, same words undergo the same phonological phenomena such as vowel shortening(diphthongs become simple vowels by glide deletion), tensing and n-insertion. Those words are pronounced the same but are spelled differently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Second, phonemic spelling are different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1) Only South Korean words undergo the Duim law(l-deletion, n-deletion, l-nasalization), and therefore South Korean words are spelled as they are pronounced. On the other hand, Chinese Korean words do not undergo the Duim law, and therefore they are spelled differently from South Korean. 2) both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words undergo umlaut. But umlaut is reflected only in the Chinese Korean orthography. 3) Some words with the same meaning in South Korean and Chinese Korean are pronounced differently as well as spelled differently. In this case they take different phonemes as their underlying representation.

Chapter 4 discuss the spelling differences in morphology. South Korean and Chinese Korean show spelling difference of allomorphs such as the past tense pre-final ending $-\text{əs}'$ / $-\text{as}'$ / $-\text{yəs}'$ and the adverbial ending $-\text{ə}/-\text{a}/-\text{yə}$. When the verb/adjective final syllable contains light vowels $-a$, $-o$ in p -irregular verbs, Chinese Korean takes the adverbial ending $-a$ and the past tense pre-final ending $-\text{as}'$ while South Korean takes them $-\text{ə}$ and $-\text{əs}'$, respectively. When the verb-final syllable contains front vowels, Chinese Korean takes the adverbial ending $-\text{yə}$ and the past tense pre-final ending $-\text{yəs}'$ while South Korean takes them $-\text{ə}$ and $-\text{əs}'$. Chinese Korean does not reflect epenthetic $-s$ in spelling but South Korean does. Some adverbs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show orthographic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adverbial suffix $-i$ and $-hi$.

In Chapter 5 I compare the word spacing of bound nouns and auxiliary verbs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Bound nouns and auxiliary verbs of Chinese Korean are attached to preceding words and main verbs, respectively, while those of South Korean are not.

In Chapter 6 I discuss the spelling differences of foreign loanwords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Vowels, word-initial s , word-final p , t , k , fricative/affricate+vowel, and consonants in the coda are spelled differently i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In respect to transcription of vowels, when a vowel is not stressed and then it is reduced as $[\text{ə}]$. South Korean spells a reduced vowel as '어' while Chinese Korean spells 'a' as '아' as it is spelled. South Korean

language borrows voiceless plosives /k, t, p/ of foreign loanwords and spell them as aspirated consonants 'ㅋ, ㆁ, ㆁ'. On the other hand, Chinese Korean spells them as aspirated consonants 'ㅋ, ㆁ, and ㆁ' and tensed consonants "ㄱ, ㄷ and ㅂ'. The word-initial s of English and French is spelled as 'ㅅ' in South Korean but as 'ㅆ' in Chinese Korean.

To sum up,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spelling of Chinese Korean is close to that of Middle Korean and Modern Korean. Therefore, Chinese Korean orthography is more conservative than South Korean one. This study tries to prove the historical spelling change through middle Korean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S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in 1949, Chinese Korean has been greatly developed in many aspects. In the future, Chinese Korean will develop as a more normative and refined languag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Korean orthography.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중국 조선족들은 남북의 분단부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 근 50년간 한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어¹⁾와 한국어는 여러 면에서 상당 부분 이질화되었다.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어와 표기는 거의 북한어의 언어규범에 따라 사용해 왔다. 또한 조선족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한어(漢語)와 기타 소수민족어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선어는 한국어와 음운면, 표기면, 어휘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표기 차이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의 운명은 중국 정부의 언어정책에 의하여 결정되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1956년에까지 중국은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역사적 시기로 민족어 및 민족교육의 번영 발전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는 ‘좌익’ 이념의 영향으로 민족교육은 좌절되었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문화대혁명’이 진행된 동안 당의 소수민족정책은 여지없이 탄압되고 파괴되었다. 이 시기에는 언어평등이 부정되고 조선어를 배우지 말고 한어를 배우자는 ‘조선어 무용론’이 등장하였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후 소수민족 교육은 다시 회복되어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다(전병선, 1990).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는 현지 조선족들의 조선어 교육에 『조선말맞춤법』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는 『한글 맞춤법』을 쓰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

1) 여기에서 ‘조선어’라는 용어는 중국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어’를 가리킨다. 한국학자들은 중국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어’를 ‘중국조선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조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까지는 중국 외국어 대학에서도 주로 『조선말맞춤법』을 사용했으나,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의 경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글 맞춤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어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에는 세 가지 표기규정에 따라 출판된 한글 도서가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 편찬한 『조선말 맞춤법』을 따르는 도서와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한국에서 편찬된 도서, 그 외에 북한에서 편찬한 도서가 있다. 이들 도서에서 다른 표기법이 사용되다 보니 현재 중국 조선족들은 조선어와 표기에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은 한국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조선어 습득에서 한국어로부터 새로운 어휘를 받아들이면서 여태까지 써왔던 중국 조선어 표기를 정확히 써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어 교육자와 조선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식 조선어를 새롭게 정리하자는 견해와 한국어를 표준어로 삼아 조선어를 순화시키자는 견해이다. 두 견해는 모두 반세기 동안 유일하게 표준어로 인정하고 사용해왔던 문화어를 고수하지 않고 한국어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어와 한국어의 표기 차이 분석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조선어 표기와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통하여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표기규범의 차이 외에도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로서 박갑수(1997)의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의 비교 - 「조선말소사전」을 중심으로」, 심련화(2002)의 「중국

조선어에서의 외래어와 한국어에서의 외래어 비교 연구」, 최윤갑(1994) 『중국, 조선, 한국 조선어 차이 연구』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어만의 연구로서 김병운(2000)의 「중국조선족의 언어이질 현상과 그 발전적 추세 - 어휘사용을 중심으로」, 김소동·최희수·이은규(2003)의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를 들 수 있다. 박갑수(1997)에서는 표기의 차이, 표준어의 차이, 사회 문물제도 등에 따른 낱말의 차이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표기 차이에서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음법칙, 사이시옷, 자음 변동, 모음 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심련화(2002)는 외래어 표기의 비교에만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최윤갑(1994)은 조선어, 북한어와 한국어의 표기 차이, 표준어 차이, 외래어 차이, 문장부호 차이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는데, 표기 차이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규범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병운(2000)은 주로 조선어의 이질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본래 우리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체계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어의 어휘는 여전히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재래에 우리가 쓰던 어휘의 3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한어 수용어, 북한 문화어, 조선족들의 방언을 혼합한 새로운 어휘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어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휘의 이질화만 다루고 표기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소동·최희수·이은규(2003)에서는 중국조선어 역사 개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어의 표기, 조사, 문법, 어휘의 변화 역사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또 중국 조선족들의 이중 언어 사용도 함께 다루었다. 표기에서는 조선어 표기의 통시적 연구에 한정하여 조선어와 한국어의 공시적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기와 조선어 표기에서 나타난 차이를 맞춤법규범에 따라 음운현상, 형태, 띄어쓰기, 외래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차이의 근본 원인도 밝히려고 한다.

1.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은 민족어로서의 중국 조선어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민족 문자의 통일을 위한 탐색에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는 중국 연변언어연구소(1992~1995)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 1. 2. 3집에 실린 조선어 단어와 한국 국립 국어원(1999)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국어 단어이다. 『조선말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사전이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 조선어 규범 주석사전이고, 가장 최근에 출판되었으며,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 국어 대사전』은 한국어 어문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였고,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과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심재기, 1999년 참조).

본고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어를 찾아 음운현상 표기, 형태 표기,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로 나누어 총 7장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 규정의 변화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자세히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음운현상 표기와 음운표기의 차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형태에 의한 표기차이로 사이시옷과, 부사파생 접미사 ‘-이’, ‘-히’에 관한 표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다. 다음 제5장에서는 띄어쓰기 차이를 조선어와 한국어의 규범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외래어 표기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규정의 변천

한글 맞춤법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번 변화를 보여 왔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공식 규정이 없이 쓰여 왔지만 갑오경장 이래 ‘국문’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처음으로 맞춤법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개화기에 이르러 맞춤법의 정비가 필요해서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민현식 1992). 1894년 11월에는 모든 공문에 국문으로 본을 삼을 것을 명하는 칙령이 내려졌고, 1895년에는 나라에서 “법률명령은 다 국문으로써 그 본을 삼고 한역(漢譯)을 부(附)하며 혹 국·한문을 혼용함”이라는 법령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오랫동안 한문이나 이두문을 공용문으로 사용해 왔던 제도에 갑작스러운 변혁이 일어났고 종래에는 언문이라 불리면서 천시되던 한글이 비로소 국문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1912년 4월, 조선 총독부에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마련하여 최초로 표음주의를 성문화한 철자법을 탄생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관용적 용법에 따라 발음대로 적고, 아래아(·)를 사용하지 않고, /ㅏ/로 쓰며 된시옷의 기호는 ‘ㅓ’만 사용하며, 장음은 글자의 왼쪽 어깨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 후 1921년 일부를 수정·보완하였고, 1930년 『언문철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음소주의에서 형태음소주의로 표기원칙이 바뀌었다. 그러나 『언문철자법』은 주시경계 개혁파의 강한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33년에 민간단체(조선어학회)에 의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²⁾이 등장했다. 이 맞춤법 통일안은 후에 남·북한의 맞춤법의 모태가 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총론과 각론, 부록의 3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론은 7장, 65항, 부록은 표준어와 문장부호로 되어 있다. 그 총론은 다음과 같다.

2) 1933년에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맞춤법’을 옛 표기 그대로 ‘마춤법’이라고 하고 있다.

한글마춤법통일안 총론

- 1항: 한글마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 2항: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3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형태음소주의 규정이 더욱 철저해 졌다. 이 통일안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는데 1937년에 1차 수정안³⁾이 나왔다. 1940년 2차 수정안에서 ‘마춤법’을 ‘맞춤법’으로 고치고, 본문 제 19항 중의 ‘후’를 ‘추’로 고쳤으며 제 30항의 사이시옷을 중간에 쓰고(코스날), 자음 밑(손스등)에서도 쓰도록 했다. 7장 띄어쓰기에서도 일부 용례를 고쳤고, 부록 2의 문장부호는 대폭 추가했다.

2.1. 조선어 표기법의 변천

중국 조선족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으로 해방 전까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광복 이후 서울 표준말을 기준으로 조선어를 사용하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양말’을 기준⁴⁾으로 조선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표기법도 줄곧 북한어의 규범을 따라 써왔다. 그것은 1963년 주은래 총리의 지시 정신도 있었고, 중국과 북한은 국토가 인접하고 있고, 같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조선어 표기는 줄곧 북한어의 표기

3) 1936년 10월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모음’이 발표되자 그에 따라 통일안 각 조항에 쓴 말도 모두 사정한 표준말로 고친 수정판이다.

4) 1963년 주은래 총리의 “우리나라의 조선족들은 조선인민들도 알 수 있는 평양표준어에 따라 글을 쓰고 말을 하라.”는 지시에 좇아 연변역사언어연구소에서는 1966년 3월에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 잠정방안(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원칙은 조선어 명사, 술어는 북한인민과 우리나라 조선족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원칙에 따라 규범화하되 일부 어휘는 우리의 관습적 용법에 의하여 규범화한다는 것이다.

규범을 따라 써 오다가 1969년⁵⁾에 띄어쓰기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북한의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 준하여 만들었다. 이 규정에서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붙여 쓰도록 한⁶⁾ 북한의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철자법은 ‘사이 표’⁷⁾ 사용 규정만 따로 하고 기타는 북한어 규정을 따라 쓰기로 하였다. ‘사이 표’는 북한어와 달리 동음이의어에만 쓰기로 하였다.

1977년 8월에 처음으로 『조선어문철자법』, 『조선어띄어쓰기』, 『조선어표준발음법』, 『문장부호법』을 제정하였으나 철자법, 발음법 등은 북한어의 어문규정을 따라 제정하였다. ‘사이 표’도 이때부터 발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따라 쓰지 않았다.

1978년 12월에는 정식으로 『조선말 명사, 술어, 규범화 원칙』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어휘들은 그대로 쓰며 새 명사, 술어는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한어나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여 쓰며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는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984년에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조선어문 사업 협의소조 판공실에서 『조선말규범집』을 발간했는데 모두 126쪽으로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말맞춤법』, 『조선말띄어쓰기』, 『문장부호』, 『조선말어휘규범집』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범의 『조선말맞춤법』은 북한을 따라 어두의 ‘ㄴ’과 ‘ㄹ’의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표기에서 ‘-ㄹ’과 다른 형태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조사로 되면서 ‘ㄹ’ 다음의 평음이 경음으로 되는 것은 모두 평음으로 표기하도록 수정하였다(-ㄹ(으)가, - ㄹ(으)수룩). 이 규범은 조선족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곳이 군데군데 보인다. 부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 사업조례(중국어 원

5) 이 띄어쓰기규범은 1970년부터 사용하였다.

6) 첫째, 토 없이 어울리어 하나의 덩이를 이루는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어, 동사 또는 형용사들이 어울리어 하나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붙여 쓴다. 둘째,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은 뒷말에 붙여 쓴다. 셋째, 같은 말이거나 비슷한 말이 겹쳐 쓰이는 경우거나 녹아 붙은 말은 붙여 쓴다.

7) ‘강’가, 기’발, 시’누렁다, 손’등’과 같이 사이시옷 대신에 사이 표(‘)를 쓰기로 하였다.

문도 함께)”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조선어문 학습사용 상벌실시 규정”이 붙여졌다.

1996년에는 중국 조선어사정위원회와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협의회 소조판공실이 공동편찬 한 『조선말규범집(수정 보충판)』이 나왔다. 이 규범에서는 1985년의 내용에 2개의 항⁸⁾을 보충하고 한 개의 항⁹⁾을 삭제하였다. 사이 표와 사이시옷에 관해서 이 규범에서는 모두 삭제하여 사이시옷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셋별’과 ‘새별’, ‘빗바람’과 ‘비바람’)에만 사이시옷을 넣어 의미를 구별하였다. 또한 수사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지 않고 한글로 적을 경우 “만, 억, 조”의 각 단위만 띄어 쓰던 것을 “백, 천, 만, 억, 조”(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육십오) 단위마다 띄어쓰기로 했다. 기관이나 부서 이름 가운데 ‘및’이 들어갈 때에는(평양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화학 및 경공업위원회) ‘및’의 앞뒤 단어를 띄어쓰기로 했다.

중국 『조선말규범집(수정 보충판)』의 <조선말맞춤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총칙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 조선어문은 철자법과 발음법에서는 북한어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면에서는 북한어와 공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하지만 차이도 인정하고 있다.

조선어는 현재까지 1996년 『조선말규범집(수정 보충판)』을 사용하고 있다.

8) 제6항: 한 형태부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적는다.

제14항: 토‘-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와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는 준대로 적는다.

9) 1985년 판의 제17항: 사이 표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쓰지 않는다.

2.2.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

남한에서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쓰다가 1946년 3차 수정안을 제정했다. 이 수정안(1946년 9월)에서는 10항, 48항, 61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30항의 사이시옷을 다시 1933년 안으로 원상 복귀하여 자음 뒤의 사이시옷을 폐지했고, 띄어쓰기 항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70년대까지 계속 쓰여 왔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 9일 한글날 한글학회는 1946년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 전문을 순 한글로 바꾸어 『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한글판)』을 발행하였고, 이 맞춤법을 정부에서 공식으로 채택하여 언어 규범의 기본틀로 삼았다. 이어서 1956년 5차 수정안에서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한자 용어를 순우리말 용어로 바꾸었다. 1980년에는 한글학회에서 내용이나 용례를 전면 개정한 개정안을 내놓는데 기존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이라 하고 전체 표기의 원리나 내용은 1946년 안의 골격을 유지했다. 총론 2개 항, 각론 5장(총 53개 항), 붙임(부록)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부호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 전면 개정안은 학회안이었으므로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1956년 제정된 『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한글판)』이 1988년 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글 맞춤법통일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커져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어문규범의 전면적인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79년 봄에는 개정 시안들이 만들어졌지만 1979년의 10·26 사태와 1980년 5·18 사태로 보류되다 1983년부터 재 사정 작업에 들어가고 1984년에 국어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되어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탄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방 후 첫 국정 맞춤법규범이 되었다. 이 맞춤법은 6개 장, 57개 항 및 부록(문장부호)으로 되어있다. 총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칙

제1항: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규범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조선말맞춤법』과 『한글 맞춤법』을 비교하면 총칙부터 차이가 난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총칙을 맞춤법의 첫머리에 두고 철자 원칙을 밝혔는데 철저히 형태주의 원칙을 취하지만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에 따라 적을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총칙을 제1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3개 항을 설정하였다. 제1항에서는 철자 원칙을 밝히고 2항에서는 띄어쓰기 원칙을 밝혔으며 제3항에서는 외래어표기법 원칙을 밝혔다. 총칙 1항의 규정은 조선어와 달리 형태음소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도 서로 다르다(부록 참조).

제3장 음운 현상 및 음운 표기의 차이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과 근반세기 동안이나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왔기에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현대 조선어는 한국어와 어휘뿐만 아니라, 표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음운 현상 표기와 음운 표기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표기차이는 한 단어가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하게 발음되는지 아닌지로 구별한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단어 중 동일한 음운현상을 꺾어서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다른 예는 음운 현상 표기 차이에서 다룬다. 음운현상이 조선어나 한국어 중 하나에만 적용되어 서로 발음과 음운표기가 다르거나, 같은 의미를 가진 조선어와 한국어 단어지만 기저형이 다르므로 발음과 음운 표기가 다른 예는 음운 표기 차이에서 다룬다.

다음 절에서 음운현상 표기차이를 나타내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어 ‘꺨’와 한국어 ‘꺨’는 둘 다 단모음 [꺨]로 발음되지만, 한국어는 이중모음 ‘꺨’로 조선어에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하여 ‘꺨’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경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을 조선어는 평음으로 표기하고, 한국어는 경음으로 표기한다. 셋째, 조선어와 한국어에 ㄴ-첨가가 일어나서 동일하게 발음되나 조선어는 ‘ㄴ’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국어는 ‘ㄴ’을 표기에 반영한다.

3.1. 음운 현상 표기 차이

음운 현상 표기에서는 음운현상의 결과 조선어와 한국어가 동일하게 발음되지만 표기가 다른 단어만 한정하여 살펴본다.

3.1.1.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표기

『조선말맞춤법』 제26항에서는 “한자어에서 모음 /je/가 들어있는 음절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폐’와 ‘메’는 이중모음 /je/에서 /j/가 탈락한 단모음 /키/의 형태로 표기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 8항에서는 “‘계, 례, 메, 폐, 혜’의 ‘키’는 ‘키’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키’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이 차이에 의하여 조선어와 한국어의 아래 단어는 모두 단모음 [페]로 발음되지만 조선어는 ‘폐’로, 한국어는 ‘페’로 표기한다.

(1)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폐허	페허
폐암	페암
전폐	전페
엄폐호	엄페호
폐물	페물
은폐	은페
폐음절	페음절
폐하	페하
폐기중	페기중
폐간	페간

고대·근대 한국어 단계에서 조선어의 ‘폐’는 이중모음 /키/를 가진 형태로 표기되었다.

- (2) a. 폐(肺) : 폐와 장과엿 락 흐리요물 시스샤(楞嚴經諺解 2 : 123)
 b. 폐단(弊端) (同文類解上 50)

조선어에서 ‘폐가’ ‘폐’로 표기되는 것은 북한 문화어의 표기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옛 표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폐’로 표기한 반면 북한에서는 ‘폐’가 실제 ‘폐’로 발음되므로 발음대로 표기하였다.

3.1.2. 경음화의 표기

조선어는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표기하는 일부 단어를 평음으로 표기하는데 주로 형태소 내에서 경음화를 평음으로 표기와 접미사 ‘-군’, ‘-갈’, ‘-적’ 등의 표기에서 나타난다.

1) 경음의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는 경음의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준 발음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자음을 한국어는 경음으로 표기하지만, 조선어는 평음으로 표기한다. 이것은 경음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말맞춤법』 총칙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3장 5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성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어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을 평음으로 표기한 예는 다음과 같다.

(3) 조선어 표기(ㄱ)

한국어 표기(ㄱ)

잠간

잠깐

내기해볼까

내기해볼까

혼구멍내다

혼꾸멍내다

(醒風流 3 : 35)

b. 길죽 넙죽 어틀머틀 의몽슈로 흐거라 말고(古時調. 白華山. 靑丘)

(7)의 이런 문헌자료는 ‘멀찍이’의 표기가 원래 평음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어 표기의 ‘손벽’은 중세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8) 손벽티고 닐오딴(癸丑日記202)

(3)-(5)의 조선어 단어는 ‘잠깐’을 제외하고 근대 한국어의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9) 중세 · 근대 한국어 표기 현대조선어 표기 현대한국어 표기

- a. 잠간, 잠깐, 잠깐 > 잠간 > 잠깐
- b. 멀죽이 > 멀직이 > 멀찍이
- c. 길죽 > 길죽 > 길쭉
- d. 손벽 > 손벽 > 손뻑

2) 접미사 ‘-군, -갈, -적’의 표기

조선어의 형태소 ‘-군’, ‘-갈’, ‘-적’의 표기도 한국어와 다르다. 조선어에는 형태소 ‘-군’, ‘-갈’, ‘-적’의 표기에 대한 특별한 표기법 규정이 없다. 실제 발음은 [꾼], [깎], [쩍]으로 나지만 원 형태로 평음을 가진 ‘-군’, ‘-갈’, ‘-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한글 맞춤법』 제54항에서 “‘-군’, ‘-갈’, ‘-적’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여 경음을 가진 ‘-꾼’, ‘-깎’, ‘-쩍’으로 적는다.¹⁰⁾

10) 조선어에서 접미사 ‘-군’은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는 사람”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접미사 ‘-꾼’ 역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

조선어의 접미사 ‘-군’과 한국어의 ‘-꾼’은 모두 경음 [꾼]으로 발음되지만 조선어는 ‘군’으로 한국어는 ‘꾼’으로 표기한다.

(10)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장사 <u>군</u>	장사 <u>꾼</u>
일 <u>군</u>	일 <u>꾼</u>
나무 <u>군</u>	나무 <u>꾼</u>
사냥 <u>군</u>	사냥 <u>꾼</u>
사기 <u>군</u>	사기 <u>꾼</u>
봉사일 <u>군</u>	봉사일 <u>꾼</u>
농사 <u>군</u>	농사 <u>꾼</u>
배 <u>군</u>	배 <u>꾼</u>

조선어의 접미사 ‘-갈’을 한국어에서 경음을 가진 ‘-깎’로 표기한다.

(11)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색 <u>갈</u>	색 <u>깎</u>
맛 <u>갈</u> 스럽다	맛 <u>깎</u> 스럽다
빛 <u>갈</u>	빛 <u>깎</u>

3) ‘적다’와 ‘쩍다’의 표기

한국어는 ‘-적다’와 ‘-쩍다’를 별개의 형태소로 보고 ‘적다’(少)의 뜻을 유지할 때는 ‘적다’로 적고 접미사로 쓰일 때는 ‘객쩍다’, ‘해망쩍다’, ‘멋쩍다’와 같이 ‘-쩍다’

람’의 뜻으로 조선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 적는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이 모두 ‘적다’로 적는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객적다’, ‘떡적다’, ‘별미적다’, ‘해망적다’를 조선어는 ‘객적다’, ‘떡적다’, ‘별미적다’, ‘해망적다’와 같이 표기 한다.

현대 조선어에서 접미사 ‘-군’, ‘-적’에 나타나는 음절 초 자음을 실제 발음과 달리 평음 ‘ㄱ’, ‘ㄷ’로 표기하는 것은 북한어의 영향 때문이다. 북한어는 중세·근대 한국어 표기를 유지하고 있는 단어가 많은데, 조선어는 북한어의 표기를 수용하고 있기에 표기에서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12) a. 상도사군:扛擡軍(釋語類解補27)

b. 그 사람이 선친과 정성적^ㄷ게 굴고 일궈기도 헛더니(閑中錄388)

문헌자료에서 ‘-갈’의 어원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외에 ‘-(으)ㄹ’과 어울려 쓰이는 의문형 어미의 경우 조선어는 ‘ㄹ’ 다음에 오는 어미의 음절 초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평음으로 표기하나 한국어에서는 이를 경음으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조선어와 한국어는 (13)에서 ‘ㄹ’ 다음에 오는 어미의 음절 초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다르다.

(13)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으)ㄹ가?

-(으)ㄹ까?

-(으)ㄹ꼬?

-(으)ㄹ꼬?

-(으)ㄹ리가?

-(으)리까?

-(으)ㄹ소냐?

-(으)ㄹ쏘냐?

3.1.3. ㄴ-첨가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는 둘 다 합성어에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발음되지만 한국어만 ‘ㄴ’을 표기에 반영한다.

『조선말맞춤법』 제15항에서는 “합성어에는 매개 어근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두 개의 어근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즉 발음에서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 제27항 [붙임3]에서는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고 규정하여 ㄴ 첨가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런 규정의 차이에 의하여 아래 합성어는 조선어와 한국어가 동일하게 ‘니’를 포함하여 발음하지만 조선어는 원형을 밝혀 ‘이’로 적고 한국어는 ‘니’로 적는다.

(14)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덧이	덧니
사랑이	사랑니
빠드렁이	빠드렁니
송곳이	송곳니
어금이	어금니
옥이	옥니
젓이	젓니

위의 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선어는 합성어에서 ‘니’로 발음되는 단어도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에 의하여 ‘이’로 표기하고 있고 한국어는 발음대로 ‘니’로 표기하고 있다.

3.2. 음운 표기 차이

조선어와 한국어는 음운 현상 표기뿐만 아니라 음운 표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운표기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첫째, 조선어나 한국어 중 어느 하나가 음운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므로 발음과 음운 표기가 서로 다르다. 한국어만 두음법칙을 발음과 표기에 적용하므로 해당 단어는 조선어와 발음과 음운 표기가 다르다. 조선어는 일부 단어에서 음라우트가 적용된 결과를 해당 단어의 기저형으로 설정하므로 한국어와 조선어의 해당 단어는 발음과 음운 표기가 다르다. 둘째, 같은 의미를 가진 조선어와 한국어 단어이지만 기저형이 다르므로 발음과 음운 표기가 다르다.

3.2.1. 자음 표기

한국어는 음절 초에 단자음 [l]이 오는 것을 꺼리고 어두에 [l]이나 [n]이 i/j 앞에 오는 것을 꺼리는 두음법칙 때문에 ‘ㄴ-탈락’, ‘ㄹ-비음화’, ‘ㄹ-탈락’이 일어난다. 한국어에서 해당 단어는 어두에 음운 /l/과 /n/을 설정하지만 두음법칙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므로 음운 /l/과 /n/을 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저형에 음운 /l/과 /n/을 설정하고 원음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국어 단어는 조선어와 발음도 다르고 음운표기도 다르다.

1) ㄴ-탈락

『조선말맞춤법』 제 24항에서는 “한자음은 음절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어에서 ‘ㄴ’[n] 뒤에 모음 ‘ㅣ’[i]나

반모음 ‘j’ 로 시작되는 이중모음 ‘ㅈ, ㅊ, ㅊ, ㅍ’ 가 연결되면 ‘ㄴ’은 치경구개음 [n]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ㄴ-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두에서 i/y 앞의 /n/ ‘ㄴ’이 어두에 그대로 표기된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 10항에서는 ‘냐,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음절에 올 때는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여, 한국어는 ‘ㄴ-탈락’이 일어난다.

아래 단어에서 조선어는 어두에 음운 /ㄴ/을 표기했고 한국어는 ‘ㄴ-탈락’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으므로 어두에 음운 /ㄴ/이 표기되지 않는다.

(15) 조선어 표기(ㄴ)	한국어 표기(∅)
녀자에	여자애
녀려	여려
녀류작가	여류작가
녀인	여인
녀동생	여동생
녀로하다	여로하다

어두뿐만 아니라 접두사 + 어간이나, 합성어의 두 번째 어간이나, 구의 첫 음에 오는 /n/이 /i, j/앞에서 탈락 한다. 『한글 맞춤법』 제 10항[붙임2]에서는 “접두사 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하고 [붙임3]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는 ‘ㄴ-탈락’이 없으므로 원래의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다음 단어에서 합성어의 두 번째 어간의 어두 ‘ㄴ’ 이나 접두사 뒤의 어간의 어두 ‘ㄴ’ 도 (15)와 같이 표기된다.

(16) 조선어 표기(ㄹ)

한국어 표기(ø)

돌아갈ㄹ11)

돌아갈 열

신ㄹ성

신여성

절대ㄹ대

절대연대

회계ㄹ연도

회계연도

아래 자료 표기는 ‘ㄹ’ 탈락이 근대 한국어부터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7) a. 드이여 텨즈위에 나아가샤 흙덕으로써 임글 되샤(十九史略諺解1, 17b)

b. 대저 올 년식 고로로 직손(직당으로 벼가 그릇된단 말슴이라) 히를 입어(諭京畿民人綸音, 3b)

조선어가 근대 한국어 이전의 표기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북한어의 표기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근대 한국어 단계에 일어난 두음법칙을 인정하고 표기에 반영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1948년 1월에 공포한 『조선어신철자법』에 의하여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런 규정에 의하여 조선어에서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어는 ‘ㄹ’ 탈락 표기에 대해서 한국어보다 보수적이다.

2) 어두 ㄹ- 비음화 표기

조선어문에서는 『조선말맞춤법』 제24항에 따라 한자어의 어두에 ‘ㄹ’이 와도 원

11) 조선어문에서는 형식명사 ‘님’과 관형사 ‘돌아감’ 사이에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제4장 참조

음대로 적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유음 ‘ㄹ’은 어두에서 발음되지 않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2항에서는 한자에서 어두에 ‘ㄹ’이 오거나 접두사 + 어근의 경우 두음 법칙에 따라 ‘ㄴ’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어와 한국어는 이런 규범의 차이 때문에 해당 단어가 발음이 다르고 어두 ‘ㄹ’의 음운 표기도 다르다.

조선어는 어두에 음운 /ㄹ/을 발음하므로 ‘ㄹ’을 표기하고, 한국어는 어두의 음운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에 따라 ‘ㄴ’으로 표기한다.

(18) 조선어 표기(ㄹ)	한국어 표기(ㄴ)
톡색	<u>눅</u> 식
락심하다	낙심하다
로량앞바다	노량앞바다
래일	내일
랴루하다	냐루하다
락엽	낙엽
톡음방초	눅음방초
뢰성벽력	내성벽력
로천관측소	노천관측소
락뢰	낙뢰
랑송	낙송
투설	누설

3) ㄹ- 탈락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는 ‘ㄹ-’ 탈락과 관련하여 음운표기의 차이를 보인다. 조선어는 『조선말맞춤법』 제24항에서 “한자어는 음절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원음대로 표기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유음 ‘ㄹ’이 ‘ㄱ’ 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이중모음 ‘ㄱ, ㅋ, ㆁ, ㆁ’ 앞에 오면 ‘ㄹ’이 탈락한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에서는 ‘한자음 려, 려, 료, 류, 리, 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 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어와 한국어는 어두에서 음운 /ㄹ/의 표기가 다르다. 즉 조선어는 ‘ㄹ-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 /ㄹ/를 그대로 표기하고 한국어는 어두에 [ㄹ]을 발음하지 못하므로 ‘ㄹ-탈락’이 일어난 표기를 한다.

조선어는 어두에 음운 /ㄹ/을 표기했고 한국어는 ‘ㄹ-탈락’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으므로 어두에 음운 /ㄹ/을 표기하지 않는다.

(19) 조선어 표기(ㄹ)

한국어 표기(∅)

런꽃	연꽃
레사롭다	예사롭다
랴해하다	양해하다
륄곽	윤곽
선륄	선율
진렬	진열
렉룽하다	영룽하다
렉차	열차
류달리	유달리
리상	이상
력사	역사
규륄	규율
력력하다	역력하다
살륄	살육
렉패자	열패자

3.2.2. 모음표기

같은 의미를 가진 조선어와 한국어의 단어 중 기저형의 모음이 달라 표기가 다른 예가 있다. 이 절에는 그런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조선어 /ㅏ/, /ㅣ/, /ㅓ/ : 한국어 /ㅓ/, /ㅕ/

한국어에서 이중모음 /ㅓ/, /ㅕ/를 가진 단어가 조선어에서는 /i/나 /j/또는 /w/가 탈락된 단모음 /ㅏ/, /ㅣ/, /ㅓ/로 나타난다. 이것은 두 언어가 기저형의 모음을 달리 설정하기 때문이다.

(20)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어구(ㅏ)

어귀(ㅓ)

결구(ㅏ)

결귀(ㅓ)¹²⁾

딩굴다(ㅣ)

딩굴다(ㅓ)

컬레(ㅓ)

컬레(ㅕ)

한국어에서는 ‘어구’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어구’는 ‘어귀’의 방언으로 인정되고 있어 남·북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어귀’와 ‘어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¹³⁾ ‘딩굴다’와 ‘컬레’는 문화어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12) (1) 새끼를 낳은 뒤의 암돼지.

(2) 식욕이 매우 왕성하고, 음식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어귀에는 약방이 하나 있었다(중학교 교과서 1학년 하, 86쪽) 중국조선족 작가가 쓴 문장이나 중국어 문장을 번역하여 쓴 작품은 ‘어구’로 되어있고 한국 작가가 쓴 글을 옮겨놓은 문장은 한국식을 그대로 따라 ‘어귀’로 표기하고 있다.

2) 조선어 /웨/, /궤/ : 한국어 /외/ , /궤/

조선어에의 ‘웨치다’를 한국어에는 ‘외치다’로 표기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에서는 이중모음 ‘웨’로 한국어에서는 단모음 ‘외’로 구분했다.

- (21) a. 분노의 웨침소리가 찌렁찌렁 메아리쳤다(조선어 표기).
- b. 류꼬마가 큰소리로 웨쳐댔다(조선어 표기).
- c. 이건 뒷자리에 오십도 넘었을 아낙의 외침이었다(한국어 표기)
- d. 남수의 가냘픈 외침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한국어 표기)

조선어는 이중모음 ‘웨’로 한국어는 단모음 ‘외’로 구분했다.

최윤갑(1990)은 중국 조선족들의 언어가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방언 화자들이 단모음 /외/를 이중모음 /웨/로 발음하면서 세력을 얻어 표준어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웨치다’의 표기는 이런 외적 원인보다도 옛 표기가 남아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함이 더 타당하다. 옛 문헌에서 한국어의 ‘외치다’는 ‘웨다’, ‘웨치다’, ‘웨지다’로 표기되었다.

- (22) a. 덜로 하여 거리를 조차 웨려호노라(癸丑日記66)
- b. 저근덧 머므러 웨웨쳐 불러 부디 혼 말만 傳호야 주렴(古時調. 기러기. 靑丘永言).
- c. 썰니 나를 주기라 호고 크게 웨지져 거슴대(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 6: 32 陳氏斬頭)

(22)에서 보듯이 조선어 표기의 ‘웨치다’는 중세·근대 한국어 표기를 유지하고 있어 보수성을 보여주고 한국어의 ‘외치다’는 이중모음에 단모음화가 일어난 실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 『조선말맞춤법』 제10항 3)에서는 또 부사로 된 일부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어는 이들 부사의 표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23) 조선어문	한국어
도리어	도리어
드디어	드디어

위 예의 ‘도리어’는 한국어에서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의 뜻으로 ‘도리어’로 쓴다고 하였다. ‘드디어’를 한국어에서는 표준어 오류로 인정하고 있으며,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의 제1항에 준하여 ‘드디어’를 표준어로 인정하여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또 예외로 ‘구태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표기는 한국어의 표기와 같다. 조선어 표기 ‘도리어’와 ‘드디어’는 중세·근대 한국어 흔적을 나타내고 있어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도리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도르혀, 도르·히려’등으로 표기되었고 ‘드디어’는 ‘드드여, 드되여, 드·되·여’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 (24) a. 진실로 아들 나호몬 사오납고 도르혀 쌀 나호미 도흐물 아노라(重杜詩 諺解4: 3)
- b. 니즈면 도르혀 定의 어리요물 니버(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25)
- (25) a. 드드여 몸을 뛰여 느려디니(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5: 27)
- b. 主人이 드되여 揖하야 行하거든(家禮諺解3: 8)
- c. 이튿날 드되여 게서 분토에 제하시고(翻譯朴通事32)

역사적 음운 교체 과정에서 ‘ㅎ’은 약화되어 탈락했다. ‘도르ᄃᆞ’에서 ‘ᄃᆞ’도 탈락하여 ‘오’로 되었다. 그런 다음 이중모음 /yə/는 단모음화되어 /ə/가 되었다.

요약하면 ‘도리어’와 ‘드디어’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6) 중세·근대 국어 표기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a. 도르ᄃᆞ > 도르여 > 도리어 > 도리어

b. 드드여 > 드디어 > 드디어

(26)의 예 역시 조선어가 한국어보다 표기에서 보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3) 조선어 /ㅡ/ : 한국어 /ㅏ/

아래에 나타난 조선어 단어는 한국어의 모음 /ㅏ/를 /ㅡ/로 설정하고 표기했다.

(27)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a. 드레박

둔레박

b. 호르래기

호루라기

c. 룡드레

용둔레

d. 찌프리다

찌푸리다

조선어의 ‘드레박’은 옛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8) 죠고맛간 드레박가 네 마리라 호리라(樂章歌詞 雙花店)

그 밖의 단어들은 어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남·북한이 위의 단어의 기저형을

정할 때 북한에서는 모음 ‘으’를 넣어 설정하였고 남한에서는 모음 ‘우’를 넣어 설정하여 나타난 차이이다. 조선어는 북한어 표기를 따르므로 위의 단어는 한국어와 표기가 다르다.

4) 조선어 /ㅣ/ : 한국어 /ㅓ/

아래에 나타난 조선어 단어는 한국어의 모음 /ㅓ/를 /ㅣ/로 설정하고 표기했다.

(29)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까부 <u>ㅓ</u> 다	까부 <u>ㅓ</u> 다
미 <u>ㅓ</u> 가루	미 <u>ㅓ</u> 가루
수 <u>ㅓ</u> 다	수 <u>ㅓ</u> 다

이것은 조선어가 중세 한국어 표기나 근대 한국어 표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미ㅓ가루’에서 ‘미ㅓ’는 중세·근대한국어에서는 ‘미ㅓ’로 표기했다.

(30) 빨미ㅓ를 가지고 오라 ㅎ거늘(五倫行實圖4: 10)

한국에서도 1988년 『한글 맞춤법』 제정 이전까지는 조선어와 같이 ‘ㅣ’로 표기하였다.

(30)과 달리 조선어는 한국어의 모음 /ㅣ/를 /ㅓ/로 설정하고 표기하는 단어가 있다.

(31) 조선어표기	한국어표기
꺾 <u>우</u> 다	꺾 <u>이</u> 다
여물 <u>구</u> 다	여물 <u>리</u> 다
자래 <u>우</u> 다	기 <u>르</u> 다
털리 <u>우</u> 다	털 <u>리</u> 다

(31)의 예는 모음변화에 의하여 달라진 것이 아니라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의 표기에 의하여 달라진 예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국어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이’, ‘리’, ‘르’, 이다. 조선어문에서는 ‘ㅓ’, ‘구’이다.

5) 조선어 /ㅣ/ : 한국어 /ㅡ/

아래에 나타난 조선어 단어는 한국어의 모음 /ㅡ/를 /ㅣ/로 설정하고 표기했다.

(32)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a. 으 <u>시</u> 대다	으 <u>스</u> 대다
b. 가 <u>리</u> 마	가 <u>르</u> 마(다시찾기)
c. <u>시</u> 라소니	<u>스</u> 라소니

(32c)의 조선어 표기 ‘시라소니’는 옛 표기를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 (33) a. 시라손: 猓狢獠(同文類解下39)
 b. 시라손의 샷기: 猓狢獠崽(漢清文鑑14: 7)

6) 조선어 /ㅌ/ : 한국어 /ㄸ/

아래에 나타난 조선어 단어는 모음 /ㅌ/를 음운으로 설정하고 표기하지만, 한국어는 /ㄸ/로 음운을 설정하고 표기하고 있다.

- (34) a. 내 마음속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곶 했다(조선어 표기).
b. 사람들이 찾아오곶 하였다(조선어 표기).
c. 그리구 눈꽃 같은 반점도 별로 없다(조선어 표기).
d.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곶 하였다(한국어 표기).
e. 감방에서 생활을 떠올려 보곶 하였다(한국어 표기).
f.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한국어 표기).

조선어에서는 본동사 뒤에 보조동사 ‘하다’가 올 때 접사 ‘-곶’을 쓰나 한국어에서는 ‘-곶’(연결어미 고+ 조사ㄴ의 준말)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인터넷에서 ‘-곶’을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부방언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구, 하구, 먹구,와 같이 ‘ㅌ’로 발음하는 모음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제외한 문어에서는 이러한 모음상승은 아직까지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7) 움라우트 표기

움라우트는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다 일어난다. 하지만 조선어는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일부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표기에 반영하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조선어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형을 표준어로 설정했으므로 해당 단어의 경우 모음의 음운 표기가 조선어와 한국어가 다르다. 움라우트와 관련된 표기는 i 모음 역행동화의 표기와 ‘-장이’와 ‘-쟁이’의 표기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말맞춤법』 제22항 2)에서는 어떤 조사에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애기’, ‘-에기’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는 그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어는 음라우트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아비’와 ‘애비’(예 좀 더 넣도록) 등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다만 한국 『표준어 규정』 제 9항에서는 “i-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어는 표기에 음라우트현상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즉, ‘-내기, 냄비, 내동댕이치다’와 같은 낱말만 i-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래 단어에서 한국어는 ‘ㅣ’ 앞에 오는 중설·후설모음 /ㅈ, ㅊ/에 음라우트가 일어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조선어는 ‘ㅣ’ 앞에 오는 중설·후설모음에 음라우트가 일어나 전설모음 /ㄱ, ㅋ/이 된 결과를 음운으로 삼아 표기했다.

(35)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물웅 <u>ㄷ</u> 이	물웅 <u>덜</u> 이
엉 <u>ㄷ</u> 이	엉 <u>덜</u> 이
바지가 <u>ㄷ</u> 이	바짓가 <u>랄</u> 이
지 <u>ㅍ</u> 이	지 <u>팠</u> 이
우 <u>ㄹ</u> 이	우 <u>렁</u> 이
<u>ㅈ</u> 이다	<u>ㅈ</u> 이다(밑줄 빠짐)
꾸 <u>ㄹ</u> 미	꾸 <u>러</u> 미
토 <u>ㅍ</u> 기	토 <u>박</u> 이
종이 <u>ㅍ</u> 기	종이 <u>똥</u> 이
오 <u>ㄹ</u> 기	오 <u>란</u> 기
머리 <u>ㄷ</u> 이	머리 <u>꼬</u> 랑이
눔 <u>ㅍ</u> 이	눔 <u>팠</u> 이

움라우트현상이 남부방언에서 시작하여 중앙어에 파급된 때는 19세기 근대 한국어 시기이다. 하지만 중앙어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고 현대까지 전해왔다.

현재 조선어에서 쓰이고 있는 ‘웅덩이, 엉덩이, 우렁이, 지팡이’는 옛 문헌에서 움라우트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웅덩이, 웅더리, 엉덩이, 우롱이, 지팡이’로 표기되었다.

- (36) a. 물근 내헛흔 웅덩잇 프리로다 흐더라(三綱行實圖 烈20)
b. 以前에 업던 싸식마회 엉덩이 울근불근(靑丘永言)
c. 이튼날 썩야 보니 몸이 밧 가운데 우이엇고 껏딕 우롱이 이시되 크·미 말만 흐더라(太平廣記諺解1:34)
d. 지팡이 장: 杖(兒學編上 11)

(35)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움라우트는 음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선어가 움라우트를 음운표기에 반영한 것은 북한어의 영향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말 다듬기 및 문화어 운동¹⁴⁾을 통해 인위적인 언어 개혁운동을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북한 지역 방언의 일부를 문화어로 포함시켰다. 또 여러 지역의 방언이 함께 문화어가 된 예도 있다(곽충구: 2004). 북한어가 움라우트가 일어난 형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전설모음으로 음운 표기한 것은 남부지역의 방언을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화어가 움라우트를 음운표기에 반영한 것을 조선어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장이’와 ‘-쟁이’의 차이를 살펴보자. 중국 『조선말맞춤법』에는 ‘-장이’와 ‘-쟁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중국 조선어사전에서는 접미사 ‘-쟁이’를 “(일부 명사어근에 붙여서) 그 명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와 관련되는 직업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14) ‘문화어 운동’은 ‘문화어’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말다듬기 운동(말을 쉽게 쓸 것, 일본식 어휘를 없앨 것,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할 것, 단어를 간결하게 할 것, 좋지 못한 문틀을 없앨 것)에 이어서 한자어, 외래어, 정리,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어 ‘문화어’로 끌어 올리자는 것으로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시킨 구체화된 언어 운동이다.

있으며 ‘-장이’는 접미사로 인정하지 않고 ‘-쟁이’만 쓰고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장이’와 ‘-쟁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국 『표준어 규정』 제 9항 [붙임 1]에서는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5)와 마찬가지로 (37)에서 보듯이 기술자에 관한 단어에서 조선어는 ‘ㅣ’에 선행하는 중설모음과 후설모음에 음라우트가 일어난 전설모음을 음운으로 표기했지만, 한국어는 음라우트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ㅣ’ 앞에 오는 중설모음과 후설모음 /ㅈ, ㅊ/를 음운으로 표기했다.

(37) 조선어 표기(기술자)	한국어 표기(기술자)
석수 <u>쟁</u> 이	석수 <u>장</u> 이
은 <u>쟁</u> 이	은 <u>장</u> 이
온돌 <u>쟁</u> 이	온돌 <u>장</u> 이

(38)의 단어는 조선어와 한국어가 모두 음라우트가 적용된 결과를 기저형으로 삼았으므로 음운표기에 차이가 없다.

(38) 조선어 표기(기타)	한국어 표기(기타)
겉 <u>쟁</u> 이	겉 <u>쟁</u> 이
욕심 <u>쟁</u> 이	욕심 <u>쟁</u> 이
거짓말 <u>쟁</u> 이	거짓말 <u>쟁</u> 이
개구 <u>쟁</u> 이	개구 <u>쟁</u> 이
멋 <u>쟁</u> 이	멋 <u>쟁</u> 이
고자 <u>쟁</u> 이	고자 <u>쟁</u> 이

제4장 형태 표기의 차이

현대 한국어와 조선어는 음운현상과 음운 표기뿐만 아니라 형태 표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형태, 사이시옷, 접미사 ‘-이’, ‘-히’의 표기 차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어는 모음조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어미의 이형태 표기에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의 성격(양성모음/음성모음)에 따라 모음조화 현상이 반영되고 있지만, 한국어는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있어 이들 어미의 이형태가 모음조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조선어는 사이시옷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한국어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접미사 ‘-이’, ‘-히’도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달리 표기된다.

4.1. 부사형 어미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표기 차이

부사형 어미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른 음운론적 이형태를 선택한다. 아래에서 조선어와 한국어의 ‘ㅂ’ 불규칙 활용과 일반 동사 활용에서 이들 어미의 이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4.1.1. ‘ㅂ’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어간 뒤에 부사형 어미나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가 오면 어미는 선행어간의 모음의 성격에 따라 이형태인 ‘-아/-어’와 ‘-았/-었/-였’으로 표기된다. 이들은 모음조화에 따른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국어에서 모음조화는 15세기 중엽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이후부터 점

차 약화되어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서는 의성어·의태어와 부사형 어미 ‘-아/-어’,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연결형 어미 ‘-어도/-아도’,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에만 지켜지고 있다. 그나마 근래에는 어간 말 모음이 양성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아’ 대신 음성모음을 가진 ‘-어’ 계열의 어미를 취하여 모음조화가 더욱 파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한글 맞춤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말맞춤법』 제9항 5)에 의하여 조선어문의 용언 어간+ 어미(-아/-어/-어라)의 연결에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ㅂ’ 불규칙 용언을 활용 할 때 ‘-ㅂ’은 반모음 /w/ ‘ㄷ(ㄴ)’로 바뀌고,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부사형 어미 ‘-아’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와서 ‘-와-’와 ‘-왔-’이 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 18항 [붙임6]에 의하면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의 말 자음 ‘ㅂ’이 반모음 /w/ ‘ㄷ(ㄴ)’로 바뀌고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라도 부사형 어미 ‘-어’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와서 ‘워’나 ‘웠’이 된다. “다만, ‘뚝-, 곱-’과 같이 ‘ㅂ’ 으로 끝난 단음절 어간 뒤에 어미 ‘-아’가 결합 되면 예외적으로 모음조화를 지켜 ‘-와’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어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 ‘ㅂ’이 부사형 어미 ‘-아’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결합하여 ‘와’와 ‘왔’으로 실현되고, 한국어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 ‘ㅂ’이 부사형 어미 ‘-어’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하여 ‘워’와 ‘웠’으로 실현된다.

(39) 조선어

한국어

ㅂ불규칙 어간(양성)+ 부사형 어미(아) ㅂ불규칙 어간(양성)+ 부사형 어미(어)

안타와와

안타워와

고마와

고마워

반가와

반가워

놀라와하다

놀라워하다

보드라와지다

보드라워지다

애쳐로와

애쳐로워

가까와올수록

가까워올수

(40) 조선어

한국어

ㅂ불규칙 어간(양성)+ 과시선미(았) ㅂ불규칙 어간(양성)+ 과시선미¹⁵⁾(었)

차가왔다

차가웠다

괴로왔다

괴로웠다

다채로왔다

다채로웠다

아름다왔다

아름다웠다

위에 나타난 조선어의 단어들은 중세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옛 문헌자료에 나타난 일부 단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 a. 고마와 하시도록 말을 음흉이 하니(閑中錄202)

b. 놀라와 저픈 전초로(楞嚴經言解8: 93)

c. 흐얏는 버드리 보드라와 노흔노흔하니(初刊杜詩諺解16: 62)

그러나 ‘ㅂ’ 불규칙 활용 어간 말 모음이 음성 모음이면 조선어는 『조선말맞춤법』 제9항 5)에 의하여 부사형 어미 ‘-어’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와서 /w/와 결합하여 ‘-워-’와 ‘-웠-’이 된다. 한국어도 『한글 맞춤법』 제 18항 [붙임6]에 의하여 동일하게 실현된다.

15) 과시선미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를 나타낸다.

(42) 조선어

한국어

ㄹ불규칙 어간(음성)+ 부사형 어미(어) ㄹ불규칙 어간(음성)+ 부사형 어미(어)

귀여워하다

귀여워하다

지워지다

지워지다

나꿔채다

나꿔채다

뜨거워났다

뜨거워났다

씩워준다

씩워준다

(43) 조선어

한국어

ㄹ불규칙 어간(음성)+ 과시선 어미(었) ㄹ불규칙 어간(음성)+ 과시선 어미¹⁶⁾(었)

들키웠다

들키웠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사랑스러웠다

사랑스러웠다

미웠다

미웠다

추웠다

추웠다

4.1.2. 일반 동사 활용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는 부사형 어미 /-아/, /-어/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 /, /였/, /-였/의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말맞춤법』 제10항에 위의 두 어미 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어간이 양성 모음 /a, o/로 끝난 경우에는 양성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아, -았’이 온다(고와, 고왔다, 도와, 도왔다). 둘째, 어간이 음성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었’이 온다(미워, 미웠다, 구워, 구웠다).

16) 과시선 어미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를 나타낸다.

셋째, 어간이 전설모음 /i, ε, e, ö, ü, iy/으로 끝난 경우와 어간이 ‘하-’로 끝난 경우에는 ‘-여, -였’으로 적는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16항에서는 어간이 양성모음 /a, o/로 끝났을 때는 양성모음을 가진 부사형 어미 ‘-아’가 오고, 어간이 그 밖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음성모음을 가진 부사형 어미 ‘-어’가 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44)의 예는 어간이 전설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조선어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였’으로 표기하고 한국어는 ‘-었’으로 표기한다.

(44)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동사 어간(음성)+ 과시선 어미(였)	동사 어간(음성)+ 과시선 어미(어)
뛰 <u>였</u> 습니다	뛰 <u>었</u> 습니다
되 <u>였다</u>	되 <u>었다</u>
날이 개 <u>였다</u>	날이 개 <u>었다</u>
꽃이 피 <u>였다</u>	꽃이 피 <u>었다</u>
숨을 내쉬 <u>였다</u>	숨을 내쉬 <u>었다</u>

(45)는 어간이 전설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조선어는 부사형 어미 ‘-여’로 표기하고 한국어는 ‘-어’로 표기한다.

(45)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동사 어간(음성)+ 부사형 어미(여)	동사 어간(음성)+ 부사형 어미(어)
태 <u>여</u> 났습니다	태 <u>어</u> 났습니다
헤 <u>여</u> 졌다	헤 <u>어</u> 졌다
깨 <u>여</u> 났다	깨 <u>어</u> 났다
괴 <u>여</u> 오르다	괴 <u>어</u> 오르다

4.2. 사이 ㅅ 표기 차이

『조선말맞춤법』에는 사이시옷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 “사이 ‘ㅅ’에 관하여 각 어근이 순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 아래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에 대하여 조선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선행 어근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첫째, 순 우리말 합성어에서 선행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후행 어근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한국어에서는 사이 ‘ㅅ’을 표기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후행 어근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사이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46)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꽤ㅅ불

꽤ㅅ불

하ㅅ룻밤

하ㅅ룻밤

오ㅅ래동안

오ㅅ래동안

머ㅅ리속

머ㅅ릿속

뒤ㅅ정리

뒤ㅅ정리

나ㅅ뭇가지

나ㅅ뭇가지

개ㅅ별

개ㅅ별

어ㅅ젯밤

어ㅅ젯밤

마ㅅ윗돌

마ㅅ윗돌

고ㅅ춧가루

고ㅅ춧가루

뒤일

뒷일

깨잎

갸잎

허드레일

허드랏일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선행 어근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첫째, 한국어에서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선행 어근이 모음으로 끝날 때 후행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사이 ‘ㅅ’을 쓰지만 조선어에서도 후행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사이 ‘ㅅ’을 쓰지 않는다.

(49)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귀전

귄전

피발

피발

세배돈

세배돈

세집

세집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후행어근이 ‘ㄴ, ㄹ’으로 시작하면 한국어는 사이 ‘ㅅ’을 적으나 조선어는 사이 ‘ㅅ’을 적지 않는다.

(50)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후날

후날

단오날

단오날

패말

패말

베개머리

베개머리

셋째,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단어도 한국어는 사이 ‘ㅅ’을 적으나 조선어는 사이 ‘ㅅ’을 적지 않는다.

(51)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가외일	가윗일
사사일	사삿일
예사일	예삿일
후일	훗일

위 단어들의 현대 한국어에서 ‘ㄴ-삽입’과 ‘ㄷ-삽입’(사이 ㅅ)이 일어나 [가원닐], [사산닐], [예산닐], [훈닐]로 발음된다. 조선어와 한국어와 동일하게 발음되나 한국어와 달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위의 조선어 단어는 사전에는 올라 있으나 일상 표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3) 2음절로 된 한자어

『한글 맞춤법』에서는 2음절로 된 몇몇 한자어는 사이 ‘ㅅ’을 받쳐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맞춤법』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한 특별한 사이 ‘ㅅ’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도 다른 합성어들을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을 뿐 사잇소리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2음절 한자어의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는 차이를 보인다.

(52)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고간	곶간

세 <u>방</u>	셋 <u>방</u>
수 <u>자</u>	숫 <u>자</u>
찬 <u>간</u>	찾 <u>간</u>
퇴 <u>간</u>	툃 <u>간</u>
회 <u>수</u>	훗 <u>수</u>

4.3. 접미사 ‘-이’, ‘-히’의 표기 차이

조선어와 한국어는 부사 파생접미사 ‘-이’, ‘-히’ 표기와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경우의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1. 부사 파생접미사 ‘-이’, ‘-히’의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가 연결되는 단어의 표기 역시 차이가 있다.

『조선말맞춤법』 제23항에서는 우선 그 부사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부사일 경우, ‘ㅅ’ 받침 아래에서는 접미사 ‘-이’로 적고 ‘ㄱ’ 받침 아래에서는 발음에 따라 ‘-이’, ‘-히’로 갈라 적으며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부사일 경우 접미사 ‘-이’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이 ‘-히’로 발음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 때문에 조선어와 한국어는 일부 부사형성 접미사 ‘-이’와 ‘-히’의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53)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그욱히

그욱이

근근히

근근이

자욱히

자욱이

똑똑히

똑똑이

4.3.2. 어근+ 명사 파생접미사 ‘-이’의 표기

『조선말맞춤법』 제22항 2)의 (1)에서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 23항에서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는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의 차이에 의하여 어근과 접미사 ‘-이’가 붙는 명사는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54)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a. 거부기

거북이

b. 후거리

후결이¹⁷⁾

c. 오또기

오뚝이

d. 살사리

살살이

(54)에서 조선어의 ‘후거리’와 같은 단어는 옛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17) 말의 안장에 걸어서 말 궁둥이를 꾸미는 여러 가지 기구

(55) 후거리: 楸皮(同文類解下19)

4.3.3. 어근+ 부사 파생접미사 ‘-이’ 표기

『조선말맞춤법』 제22항의 2)의 (3)에서는 조사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가 될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조선어와 한국어는 부사 파생접미사 ‘-이’를 가진 일부 단어는 발음은 동일하지만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6)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a. 일찌기

일찍이

b. 더우기

더욱이

‘일찍이’와 ‘더욱이’는 1988년 『한글 맞춤법』 사용 이전까지 한국에서도 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음소 표기인 ‘일찌기’와 ‘더우기’로 하였는데 1988년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형태 음소적 표기 ‘일찍이’와 ‘더욱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제5장 띄어쓰기의 차이

한국어와 조선어는 띄어쓰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띄어쓰기』의 세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띄어쓰기규범>을 따로 정하고 총칙 아래 3장 18항으로 띄어쓰기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이고 있고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를 제 5장에서 10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모든 규정을 다 설명하지 않고 한국어와 조선어의 띄어쓰기에서 서로 달리 표기되는 부분만 비교하고자 한다.

『조선말띄어쓰기』 총칙 제 1항에서는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서는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어, 굳어진 말 등은 붙여 쓴다.”고 하였으며 제 3항에서는 불완전명사, 일부의 보조적 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어와 조선어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붙여 쓰고 어떤 것은 띄어 쓰며, 또 어떤 것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5.1. 명사 띄어쓰기 표기

명사 띄어쓰기에서 조선어와 한국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의존 명사이다. 조선어는 의존명사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서 선행 단어와 붙여 쓰지만 한국어는 의존명사는 선행 단어와 띄어 쓴다.

5.1.1. 의존명사 띄어쓰기

의존명사는 관형사형 어미 ‘-르/-을/-를’ 뒤나 관형사형 어미 ‘-ㄴ’, 또는 관형사 뒤나 명사 뒤에 나타난다. 조선어 『조선말띄어쓰기』 제4항에서는 불완전명사(의존명사, 형식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는 의존명사는 앞 단어와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존명사가 타나는 환경에 따라 조선어와 한국어의 띄어쓰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관형사형 어미(-르/을/를) + 의존명사

조선어에서는 의존명사는 관형사형 어미 ‘-르/-을/-를’ 뒤에 붙여 쓰지만 한국어는 관형어와 의존명사를 띄어 쓴다.

(57) 조선어 표기

단조로울만치

펼쳐진것

먹을수

좋을듯하다

손을 벨번하다

한국어 표기

단조로울 만치

펼쳐진 것

먹을 수

좋을 듯하다

손을 벨 뻔하다

2) 관형사형 어미(-ㄴ) + 의존명사

조선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의존명사를 관형어에 붙여 쓰지만 한국어는 띄어 쓴다.

(58)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그만큼

그 만큼

베어문채

베어 문 채

어떤분

어떤 분

화난척

화난 척

3) 관형사 + 의존명사

『조선말 띄어쓰기』 제7항에서는 수사¹⁸⁾가 단위명사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과 조선어에서 수 관형사와 의존명사(단위명사)의 띄어쓰기가 다르다.

(59)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한마리

한 마리

한그루

한 그루

한포기

한 포기

몇명

몇 명

두권

두 권

몇번

몇 번

한글자

한 글자

다섯시

다섯 시

18) 한국어 문법에서는 수관형사라고 한다.

일곱가지

일곱 가지

한세대

한 세대

한벌

한 벌

4) 명사 + 의존명사

조선어의 『조선말 띄어쓰기』에서는 제5항에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앞, 뒤, 안, 밖, 우, 아래, 속, 가운데, 옆, 곁, 끝 곳, 현재, 초엽, 말엽, 동쪽’ 등 명사들이 토가 붙지 않은 단어 뒤에 올 경우에는 붙여 쓴다.”고 규정하여 (60)에 나타나는 ‘마을어귀, 바다위’ 단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마을 어귀, 바다 위’와 같은 단어를 이미 하나의 단어가 아닌 구로 보고 띄어 쓰고 있다.

조선어와 한국어는 명사 뒤에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뒤에 올 때 선행 명사와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0)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마을어귀

마을 어귀

울바자밖

울바자 밖

바다위

바다 위

저녁무렵

저녁 무렵

땅끝

땅 끝

19세기말엽

19세기 말엽

교실안

교실 안

도시속

도시 속

종이탓
풍차따위

종이 탓
풍차 따위

위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조선어는 ‘마을어귀, 바다위’와 같은 단어를 합성어로 보고 표기에 반영하나 한국어는 단어가 아닌 구로 보고 띄어 쓰고 있다.

5.1.2.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띄어쓰기

조선어와 한국어는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띄어쓰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말띄어쓰기』 제2항에서는 “명사들이 조사 없이 직접 어울리는 경우에는 의미상으로나 발음상으로 하나의 덩이를 이루는 것을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고 총칙을 정하고 “칭호, 직명 등이 뒤에 올적에는 그것을 앞에 붙인다. 그러나 뒤에 오는 칭호나 직명을 붙여 씀으로써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48항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고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조선어와 한국어의 고유명사 및 학술 용어는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1) 조선어 표기

이순신장군
소년공자
의사선생님
황금색갈기
모란꽃임금

한국어 표기

이순신 장군
소년 공자
의사 선생님
황금색 갈기
모란꽃 임금

대국사신
수군공노수
소학교선생님

대국 사신
수군 공노수
소학교 선생님

위의 예에서 조선어는 ‘이순신장군, 대국사신’등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이런 단어를 합성어로 보고 표기에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어는 ‘이순신 장군, 대국 사신’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명사구로 보고 표기하고 있다. 이런 표기들을 통하여 조선어가 한국어보다 합성어를 더 많이 인정하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본용언과 보조용언 띄어쓰기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뒤에서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뉜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보조 용언으로 사용될 경우 본용언의 의미에서 떨어진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조선말띄어쓰기』 제11항 2)에서는 “-고, -다가(-는가), -다가, -나상, -고야” 등과 같은 형의 동사 뒤에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 “있다, 보다, 나다, 버리다, 싶다, 말다” 등이 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어 표기와 조선어 표기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62) 조선어 표기

따지고들다

한국어 표기

따지고 들다

주고있다

데리고가셨다

바라보고있었다

안되어보였다

보고있다

씩워주고싶다

앵돌아지고말았다

밝히고싶었다

주고 있다

데리고 가셨다

기억하고 있다

안 되어 보였다

보고 있다

씩워주고 싶다

앵돌아지고 말았다

밝히고 싶었다

(62)의 예에서 보듯이 조선어는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올 경우 붙여 쓰고 있으나 한국어는 띄어 쓰고 있다.

제6장 외래어 표기의 차이

조선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는 대부분 북한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차이와 중국 실정에 의한 타 민족 언어의 수용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 조선어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표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조선족 학자들은 외래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흥권(1983)은 “외래어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들에서 들어온 어휘이다. 그리고 외래어는 일명 차용어이다.”고 하였다. 중국 연변 교육출판사(1999) 『조선말 사전』에서는 “외래어란(外來語) 다른 언어로부터 자기의 언어에 들어온 단어이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어의 외래어 개념에 대하여 임홍빈(1996)은 “외래어란 차용어이며 외래어의 개념 중 핵심이 되는 것은 동화이며, 그것은 국어 문맥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고, 이희승(1998)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말이 국어에 파고들어 익게 쓰여 지는 말 곧, 국어화한 외국어, 차용어, 들어온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대사전(1999)은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련화(2002)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외래어 관련 핵심 사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3) 조선어

- a. 외래어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들에서 들어온 것이다.
- b. 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것이다.
- c. 외래어는 일명 차용어이다.

(64) 한국어

- a.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온 것이다.
- b. 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것이다.
- c. 외래어는 단어이다.

위에서 보듯 조선어는 외래어를 한국어처럼 다른 언어에서 온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므로 다른 언어란 다른 민족의 언어이자 다른 나라의 언어이므로 다른 민족의 언어에서 들어 온 것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언어로부터 많이 차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인 반면, 조선어에서 외래어는 중국의 다른 민족 언어로부터 차용해온 단어이다. 조선어에서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과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민족의 말을 통 털어 ‘다른 언어’라 한다.

조선어에서 다른 민족 언어로부터 차용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65) a. 몽골어

- 수바루 - 몽골 전통음식의 일종
- 우유술 - 짐승의 젖을 짜서 만든 술
- 몽골꺼르 - 몽골전통가옥

b. 장족어(티벳어)

하다-장족이나, 몽골족이 ,경의축하의 뜻으로 쓰는 흰색, 황색, 남색
의 비단 수건

c. 카자흐스탄어¹⁹⁾

똥부라 - 카자흐스탄족의 현악기

(65a)는 몽골어에서 차용한 단어이고 (65b)는 티베트어에서 차용한 단어이며, (65c)는 카자흐스탄어에서 차용한 단어이다. 이처럼 조선어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민족에서도 외래어를 차용하였다.

6.1. 인명·지명의 외래어 표기

한국어의 『외래어표기법』²⁰⁾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의 표기와 ‘인명, 지명, 표기’까지 포함시켰다. 한국어에서는 인명, 지명, 국가 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좇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해서 보고 외국의 고유명칭(인명, 지명 등)을 외래어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어로 간주한다.

아래에서 조선어와 한국어의 외래어는 나라 이름 표기에 차이가 난다.

(66)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에스빠냐	스페인	Spain
월남	베트남	Vietnam
뿔스까	폴란드	Poland
스웨리에	스웨덴	Sweden
희랍	그리스	Greese
애급	이집트	Egypt

19) 중국경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민족의 언어를 말한다.

20) 1985년 문교부고시

‘희랍’, ‘애급(출애급기)’과 같은 단어들은 아직도 고유명사로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다.

6.2. 자음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자음은 주로 무성 파열음의 표기와 어두 /s/의 표기이다.

6.2.1. 무성 파열음 /k, t, p/ 표기

근원어(source language)의 무성 파열음 /k, t, p/가 한국어에 차용될 경우에는 유기음 /ㄱ, ㅌ, ㅍ/로 표기하지만 조선어는 유기음 /ㄱ, ㅌ, ㅍ/와 경음 /ㄲ, ㅊ, ㅍ/로 표기한다. 영어, 독일어, 라틴어 등의 무성 파열음은 유기음으로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무성 파열음은 경음으로 표기한다.

(67)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딸 <u>크</u>	탱 <u>크</u>	tank
아 <u>ㅍ</u> artment	아 <u>ㅍ</u> artment	apartment
<u>ㅍ</u> aris	<u>ㅍ</u> aris	Paris
나 <u>ㅍ</u> 레옹	나 <u>ㅍ</u> 레옹	Napoleon
<u>ㅍ</u> oplar나무	<u>ㅍ</u> oplar나무	poplar
이 <u>ㅍ</u> 리아	이 <u>ㅍ</u> 리아	Italia
<u>ㅍ</u> echka	<u>ㅍ</u> echka	pechka

6.2.2. 어두 /s/ 표기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어두 /s/를 한국어에서는 평음 /ㅅ/로 표기하지만
조선어에서는 경음 /ㅆ/로 표기한다.

(68) 조선어 표기(ㅆ)	한국어 표기(ㅅ)	영어 표기
<u>셴</u> 터	<u>셴</u> 터	center
<u>쏘</u> 파	<u>소</u> 파	sofa
<u>싸</u> 이렌	<u>사</u> 이렌	siren
모 <u>파</u> 쌍	모 <u>파</u> 상	Maupassant
쏘 <u>프</u> 라노	<u>소</u> 프라노	soprano

6.3. 모음 표기

조선어와 한국어 외래어는 모음 표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이중모음 /ey/ 표기

근원어의 /ey/가 한국어에 차용 된 후 두 단모음의 연속인 ‘에ㅣ’로 표기하지만,
조선어는 ‘ㅣ’를 탈락시키고 단모음 ‘에’로 표기한다.

(69) 조선어 표기 (ㄱ)	한국어 표기(ㄱ 1)	영어 표기
케 <u>블</u>	케 <u>이</u> 블	cable
페 <u>지</u>	페 <u>이</u> 지	page
테 <u>프</u>	테 <u>이</u> 프	tape

2) 이중모음 /yu/ 표기

근원어의 /yu/가 한국어로 차용되면 이중모음 ‘ㅠ’로 표기하지만 조선어는 두 단모음의 연속인 ‘ㅣㅏ’로 표기한다.

(70) 조선어 표기(ㅣㅏ)	한국어 표기(ㅠ)	영어 표기
카드 <u>미</u> 웁	카드 <u>뮐</u>	Cadmium
폴로 <u>니</u> 웁	폴로 <u>늄</u>	Polonium
라 <u>디</u> 웁	라 <u>듐</u>	Radium

3) 모음 철자의 영향을 받은 표기

영어에서 모든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으면 [ə]로 축약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이런 성격을 반영하여 (71)의 영어 철자 'a'와 (72)의 영어 철자 'o'를 모두 ‘ㅏ’로 표기에 반영하고 있지만 조선어에서는 영어 철자의 영향을 받아 (71)에서는 ‘ㅏ’로 (72)에서는 ‘ㅓ’로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71) 조선어 표기(ㅏ)	한국어 표기(ㅏ)	영어 표기
맨하 <u>ㅏ</u> 탄	맨하 <u>ㅏ</u> 턴	Manhatan

히스 <u>티</u> 리칼	히스케리 <u>컬</u>	histerical
<u>카</u> 텐	<u>커</u> 튼	(curtain
레이 <u>다</u>	레이 <u>더</u>	radar

(72) 조선어 표기(ㄱ) 한국어 표기(ㄱ) 영어 표기

뉴 <u>턴</u>	뉴 <u>턴</u>	Newton
워싱 <u>턴</u>	워싱 <u>턴</u>	Washington

영어에서 철자 'a'는 강세를 받으면 [ε]로 발음되는데 한국에서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여 'ㅏ'로 표기하고 있으나, 조선어에서는 영어 철자의 영향을 반영하여 'ㅏ'로 표기하고 있다. (73)의 단어들은 그런 예를 반영한 것이다.

(73) 조선어 표기(ㅏ) 한국어 표기(ㅏ) 영어 표기

<u>카</u> 나다	<u>캐</u> 나다	Canada
<u>랏</u> 프	<u>랩</u> 프	lamp

영어 철자 'e'가 [i]로 발음될 때 한국어에서는 발음대로 'ㅣ'로 표기하만 조선어에서는 흔히 영어 철자대로 'ㅓ'로 표기한다.

(74) 조선어 표기(ㅓ) 한국어 표기(ㅣ) 영어 표기

<u>세</u> 멘트	<u>시</u> 멘트	cement
<u>메</u> 터	<u>미</u> 터	meter

6.4. 마찰음 · 파찰음 + 모음 표기

한국어와 조선어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마찰음과 파찰음 뒤에 모음이 올 때 모음 표기가 다르다. 구체적인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마찰음 /ʃ/의 표기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규범』 영어표기의 제3항 2)에 의하여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어말의 /ʃ/는 ‘쉬’로 적고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좌, 췌, 췌, 쉬, 샤, 셔, 쇼, 슈’로 적는다. /ʒ/는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표기규범』 제3항 3)에 의하여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즈’으로 적는다.

이런 외래어 규정의 차이에 따라 조선어와 한국어는 어두에 오는 구개치경 마찰음 [ʃ] 뒤에 오는 모음 표기에 차이가 있다.

(75)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카네이 <u>쑤</u>	카네이 <u>션</u>	carnation
<u>샤</u> 쯔	<u>셔</u> 츠	shirt
<u>쉐</u> 익스피어	<u>셰</u> 익스피어	Shakespeare

2) 파찰음 /tʃ/와 /dʒ/의 표기

한국어 『외래어 표기규범』 제4항 1)에서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ʃ/와 /dʒ/를 ‘치’와 ‘지’로 적고 2)에서는 모음 앞의 /tʃ/와 /dʒ/는 ‘츠’와 ‘즈’으로 적는다고 규정

하였다. 그러나 조선어 외래어 표기에서는 자음 앞, /dʒ/는 모음 /a, ae, e, i, ʌ, ə, ɔ, u/ 또는 이중 모음들과 함께 각각 ‘자, 재, 제, 지, 자, 저, 조, 주’ 등으로 적고, 어말에서는 ‘지’로 적는다. /tʃ/는 뒤에 오는 모음 /a:, ae, e, i, ʌ, ə, ou, u/ 또는 겹모음들과 함께 각각 ‘차, 채, 체, 치, 차, 처, 초, 추’ 등으로 적는다. 단어 끝에서는 ‘치’로 적는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어와 조선어는 구개치경 파찰음 [tʃ] 뒤에 오는 모음 표기에 차이가 있다.

(76)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벤취	벤치	bench
쟈켓트	재킷	jacket

6.5. 받침 표기

외래어 표기에서 한국어와 조선어는 받침 표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어말 무성 파열음 표기

한국어 『외래어표기규범』 제1항에서는 “단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조선어 외래어 표기에서는 /t/는 모음 앞에서는 /t/로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트’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에 의하여 단모음 뒤에 오는 어말의 무성 파열음 /t/를 한국어로 차용할 때 받침 ‘ㅌ’으로 표기하지만 조선어에서는 /tʰ/에 /i/를 첨가한 ‘트’형태로 표기한다.

(77)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초코레트	초콜렛	chocolate
줄리에트	줄리엣	Julia
플레트홈	플랫폼	platform
자켓트	재킷	jacket
팜플레트	팜플렛	pamphlet

2) 유음 /l/ 표기

한국어 『외래어표기규범』 제6항 1)에서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 외래어 표기에서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흔히 받침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78)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받침을 적지 않는 것)	(받침을 적는 것)	
로라스케트	롤러스케이트	roller skates
샹데리아	샹들리에	chandelier

3) 비음 /n/ 표기

한국어 『외래어표기규정』 제5항 1)에서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받침으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받침 ‘ㄴ’이 ‘ㄱ, ㅋ’ 앞에 올 때에는 받침 ‘ㅇ’으로 적는다. 그리고 또 받침 ‘ㅇ’을 적는데도 개별적으로 ‘리봉’과 같이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79)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concrete
리본	리본	lemon
마네킨	마네킨	mannequin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에서는 받침을 7개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받침7개 외에 극히 개별경우 ‘ㄷ ㅌ’과 같은 받침이 쓰이고 있다,

(80)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월남	베트남	Vietnam
맑스	마르크스	Marx

한국에서도 이전에는 이런 표기를 하였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6.6. 기타

한국어 『외래어표기법』 5항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어 『외래어표기세칙』 제 2항에서는 “원음과 완전히 같지 않지만 인민들에게 오랫동안 널리 쓰이며 굳어진 일부 외래어는 습관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상의 차이에 의하여 조선어와 한국어는 아래의 외래어 표기가 다르다.

(81)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뽕끼	페인트	paint

셔츠	셔츠	shirt
라디오	라디오	radio
다이어	타이어	tyre
도마도	토마토	tomato
펌프	펌프	pump
골	골	goal

그 외 조선어에서는 많은 단어를 순화시켜 쓰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표기가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82) 조선어 표기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장애틀	허들	hurdle
당과	캔디	candy
궤	박스	box
그림영화	애니메이션	animation
방울나무	플라타너스	platanus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과 조선어의 외래어 표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선어와 한국어가 외래어 표기가 다른 주요 원인에 대하여 최윤갑(1994:165) 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석하였다.

- (83) a. 각 지역에서 외래어를 정리할 때 굳어진 외래어의 한계를 잡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b. 외래어의 표기원칙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제정되기 때문이다.
- c. 표기원칙은 같다 하더라도 원칙에 쫓아 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외래어의 어원을 다르게 잡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제7장 결 론

언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동일 언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회제도 언어규범에 의하여 이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 조선어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문화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정책과 언어 규범의 제정에 의하여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 중국의 조선어는 북한어의 규범을 거의 따르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생활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민족어의 영향까지 받고 있기에 그 이질화는 더 심각하다. 이러한 이질화는 표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표기의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장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표기법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를 음운현상과 음운 표기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음운현상 표기 차이와 음운표기 차이는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발음이 같은지 다른지로 구분된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단어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을 꺾어서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다른 예는 음운 현상 표기 차이로 분석했다. 음운현상이 조선어나 한국어 중 하나에만 적용되어 서로 발음과 음운표기가 다르거나, 같은 의미를 가진 조선어와 한국어 단어지만 기저형이 다르므로 발음과 음운표기가 다른 예는 음운 표기 차이로 분석했다.

음운현상 표기 차이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조선어 ‘꺨’와 한국어 ‘꺨’는 둘 다 단모음 [꺨]로 발음되지만 한국어는 이중 모음 ‘꺨’로 조선어에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하여 ‘꺨’로 표기하고 있다(폐허, 폐물, 어구). 둘째, 경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을 조선어는 평음으로 표기하고(잠간, 짹자꿍), 한국어는 경음으로 표기한다. 셋째, ㄴ-첨가가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나 조선어는 ‘ㄴ’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덧이, 옥니) 한국어는 ‘ㄴ’을 표기에 반영한다(덧

니).

음운표기 차이는 자음 표기와 모음 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음표기는 두음법칙(ㄴ-탈락, 어두 ㄹ-비음화, ㄹ-탈락)과 관련이 있다.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조선어와 한국어는 어두 /l/과 /n/을 기저형에서 음운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므로 음운 /l/과 /n/은 표기하지 않지만, 조선어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운 /l/과 /n/을 그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국어의 단어는 조선어와 발음도 다르고 표기도 다르다(녀자: 여자, 록색: 녹색, 련꽃: 연꽃).

모음의 경우 ‘웨치다’와 ‘외치다’, ‘도리여’와 ‘도리어’에서 보았듯이 조선어에서는 이중모음 /계/, /ㅋ/로 표기하지만 한국어는 단모음 /기/, /기/로 표기한다. 대체로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가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표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음라우트는 조선어와 한국어에 둘 다 일어나나 조선어는 음라우트를 일부 단어에서 표기(지팽이, 엉덩이)에 반영하여 표준어로 삼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조선어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어구, 컬레)도 표기에 반영하였다. 음라우트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조선어가 표기에 반영한 것은 북한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조선어 단어는 한국어보다 표기가 더 개신적이다.

4장에서는 형태 표기 차이를 다루었는데 우선 음운론적 이형태 표기에서 조선어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 ‘ㅂ’이 부사형 어미 ‘-아’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결합하여 ‘와’(안타까와)와 ‘왔’(차가왔다)으로 실현 되고, 한국어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라도 ‘ㅂ’이 부사형 어미 ‘-어’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하여 ‘워’(안타까워)와 ‘웠’(차가왔다)으로 실현된다. 일반 동사의 활용의 경우 조선어는 어간 말 모음이 전설 모음인 경우 연결어미 ‘-여’(태여났습니다)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였’(뛰었습니다)이 오지만 한국어는 ‘-어’(태어났습니다)와 ‘-었’(뛰었습니다)이 온다.

사이시옷과 관련하여 조선어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다음의 경우 표기하고 있다. 첫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후행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후행어근이 ‘ㄴ, ㄹ’으로 시작할 때, 후행어근에 ‘ㄴ’을 삽입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모리속, 내물, 나무잎).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선행어근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후행어근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후행어근이 비음 ‘ㄴ, ㄹ’으로 시작할 때 후행어근에 ‘ㄴ’삽입이 일어날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귀전, 훗날, 후일). 셋째, 2음절로 된 한자어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등 단어에 사이시옷을 쓴다. 형태 표기 차이에서도 조선어는 한국어보다 표기에서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띄어쓰기 규범을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로 의존명사 띄어쓰기와 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어는 의존명사를 선행 단어와 붙여 쓰지만 한국어는 의존명사를 선행 단어와 띄어 쓴다(먹을수: 먹을 수, 한마리: 한 마리, 마을어귀: 마을 어귀). 용언과 보조용언도 조선어는 붙여 쓰지만 한국어는 띄어 쓴다(따지고들다: 따지고 들다).

6장에서는 외래어 표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모음 표기, 자음 표기, 받침 표기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모음 표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모음 표기 차이에서는 영어에서 모든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으면 [ə]로 발음되는 현상에 따라 한국어는 발음대로 ‘어’ 표기나 조선어는 영어 철자대로 ‘아’로 표기한다(카텐: 커튼, 레이더: 레이더). 2) 근원어의 /iu/를 한국어에서는 이중모음 ‘ㅠ’로 표기하지만 조선어에서는 두 단모음의 연속인 ‘ㅣㅏ’로 적는다(라디옴: 라듐). 3) 철자 'a'는 영어에서 강세를 받아 [ɛ]로 발음되는데 한국어에서는 발음대로 /ㅏ/로 표기하지만 조선어에서는 영어 철자대로 ‘아’로 표기한다(카나다: 캐나다).

둘째, 자음 표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자음 표기에서 근원어의 무성 파열음 /k, t, p/를 차용할 때 유기음 ‘ㅋ, ㅌ, ㅍ’로 표기하지만 조선어는 유기음 ‘ㅋ, ㅌ, ㅍ’와 경음 ‘ㄱ, ㄷ, ㅍ’ 두 가지로 표기한다(땅크:탱크, 빠리:파리). 2) 영어나 프랑

스어에서 차용한 어두 /s/를 한국어에서는 평음 ‘ㅅ’으로 표기하지만 조선어에서는 경음 ‘ㅆ’으로 표기한다(센터: 쉐터, 소파: 소파). 3) 마찰음 /ʒ/, /ʃ/와 파찰음 /tʃ/, /dʒ/의 표기에서도 모음 또는 이중 모음과 결합할 때 한국어와 조선어는 표기가 달라진다(샤쯔: 셔츠, 벤취: 벤치). 3)받침 표기에서 한국어에서는 단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지만 조선어에서는 /t/은 모음 앞에서는 /ㄷ/로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트’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표기에서 7개의 받침만 사용하지만 조선어에서는 ‘ㄹ, ㅌ’을 받침으로 쓰기도 한다(웰남, 맑스).

셋째, 조선어는 ‘퀘, 그림영화’ 등 많은 단어를 이미 순화시켜 우리말로 표기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박스, 애니메이션’ 등 외래어로 표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조선어와 한국어 표기 차이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표기법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어가 중세·근대 한국어 표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표기에서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옛 문헌 자료를 찾아서 입증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선족과 한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와 문자 표기의 이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선족들은 조선어 습득에서 한국어와 조선어의 차이를 알고 조선어를 습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타인과 대화의 능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앞으로 한·중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발전할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조선어 교육 연구에서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를 좁힐 문제도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어표기의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표기 차이를 초·중등·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만을 대상으로 『조선말사전』와 『표준대국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만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더 많은 단어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기려 한다.

광복 이후 조선어와 한국어는 비록 서로 다른 사회화환경과 언어정책의 제정으

로 인하여 각자의 길을 걸어 왔지만 모두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말은 보다 규범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발전하여 갈 것이다. 이 논문이 단지 중국조선어와 한국어의 표기 차이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문자 표기의 통일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록>

남한, 북한 중국조선어문의 언어규범 비교표²¹⁾

맞춤법 비교

	(남)한글맞춤법(1988)	(북)조선말규범집(1987)	(중)조선말규범집(1966)
총칙	제1항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에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자모 수	24자모	40자모	40자모
자모의 명칭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읓), ㆁ(앵글), ㅏ(오),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ㅊ(쌍기역), ㅌ(쌍디귤), ㅍ(쌍비읍), ㅍ(쌍시옷), ㅍ(쌍지읒), ㅍ(애), ㅍ(애), ㅍ(예), ㅍ(예), ㅍ(와), ㅍ(와), ㅍ(외), ㅍ(외), ㅍ(웨), ㅍ(위), ㅍ(위)	ㄱ(기읍), ㄴ(니은), ㄷ(디읍),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읏),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읓), ㆁ(앵글), ㅏ(된기읍), ㅑ(된디은), ㅓ(된시읏), ㅕ(된지읒) ㅊ(야), ㅌ(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ㅍ(애), ㅍ(애), ㅍ(예), ㅍ(예), ㅍ(외), ㅍ(외), ㅍ(웨), ㅍ(위), ㅍ(위)	북한과 같음
받침의 순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1) 이정희(2004) “남북한과 중국 어휘비교” 부록 재인용

	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두음절로 된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한다.	셋별(금성)-새별(새로나온 별), 비바람(비와 바람)-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바다가, 내물, 나뭇잎, 훗날, 고산, 셋방,	
‘ㅂ’음 첨가	제31항 좁쌀, 맷쌀, 찹쌀, 범씨, 햅쌀	좁쌀, 맷쌀, 찹쌀(같음) 범씨, 햅쌀(다름)	북한과 같음
접미사 [이]표기	제 23항 [이]가 붙어 원형을 밝혀 적는명사 더떨이 살살이 싹싹이 제 25항 부사화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로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표기 더욱이,일찍이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원형을 밝혀 적고, 본딴말에 첨가되어 명사가 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더퍼리,살사리 싹싹이,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적지 않는 경우, 갑자기, 반드시, 더욱이, 일찍이	북한과 같음
두음법칙	제 10항, 12항 한자음의 초성에 [ㄴ,ㄹ]이 올 경우 [ㄴ,ㅇ]으로 표기한다. 두음법칙 인정. 노동, 노인, 낙원 다만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울’로 적는다. 나열, 분열	한자음은 본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같은 한자음은 소리대로 적는다. 두음법칙 인정안함. 로동, 로인 , 락원, 여자 아래와 같은 한자음은 소리대로 적는다. 공양, 나사, 나팔, 시월, 오뉴월	북한과 같음
‘계, 레, 헤’의 표기	제 8항 [계,레,메,페,헤]의 [ㅋ]는 [ㄱ]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ㅋ]그대로 표기한다. 계수,사레,머벌,페폼,혜택	한자말의 [예]는 [계,레,헤,예]만 인정. 휴계실 레절,혜택,예술 다만 본음이 [ㅋ]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게시판,게재,게양대,페폼	북한과 같음

띄어쓰기규정 비교

	(남)한글맞춤법(1988)	(북)조선말규범집(1987)	(중)조선말규범집(1996)
총칙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단위로 묶어 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쓰도록 한다.	1.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사적 단어 결합, 학술용어, 굳어진 말들은 붙여 쓴다. 3. 불완전명사, 일부의 보조적 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 먹을 만큼, 약속한 대로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 단어에 붙여 쓰며 일부의 경우에 띄어 쓰는 것을 조절한다. 아는 것, 먹을만큼, 약속한대로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아는 것, 먹을만큼, 약속한대로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	국장 겸 과장 청군 대 백군 교장 및 교사 책상, 결상이 있다.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위에 토가 있어도 붙여 쓴다. 다만 <등,대,겸>만은 앞 단위와 띄어 쓴다. 서재 겸 응접실, 사과, 배, 감등 과일이 많다.	북한과 같음
단위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두 대, 연필 세 자루	수사가 단위명사와 어울린 것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마리, 여섯개, 14살	북한과 같음
대명사 관형사 부사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이집	관형사, 부사는 구 뒤의 단어와 띄어 쓰나, 일부는 붙여 쓰기도 한다. 내 조국, 이 나라, 우리말그때, 이것, 또다시	대명사는 아래 단어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명사, 부사와 어울려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우리 나라, 내 나라, 이 책 이것저것, 누구누구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올 듯하다→올듯하다	보조영언은 붙여 쓴다. 읽고싶다, 있는가보다, 맑디맑은, 올듯하다, 자는척하다, 아는체하다	보조용언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앞단위에 붙여 쓴다. 보고싶다, 심어주다, 올듯하다, 아는체하다
토가 들어간 경우	잘도 논다, 책을 읽어도, 잘난 체하다, 올듯 하다	올듯하다, 아는체를 하다, 갈듯말듯도 하다	북한과 같음
성명 호칭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띄어 쓸 수 있다. 김혜원, 남궁역→남궁역, 이경희 박사	성명은 붙여 쓴다. 박찬호, 독고영재, 김세진 칭호, 직명은 붙인다. 단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띄어 쓸 수 있다. 박사 김준식, 김철 부부장	성명은 붙여 쓰며 호칭이나 직명도 붙여 쓴다. 장철구동지, 권상호국장, 박명희선생님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이루는 고유 명칭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마디를 이루는 경우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사회과학원 과학지도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리는 경우에는 의미상으로도나 발음상으로도나 하나의 덩이를 이루는 것을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

참고문헌

- 강길운(2004) 『國語史精說』, 한국문화사.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강희숙(2003) 『국어정서법의 이해』, 亦樂.
- _____ (2003) 「중국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한국사회 언어학』 제11권 2호, 한국사회 언어학회.
- 고금숙((1994) 「중국의 조선족어문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재외 한인연구 제4호.
- 고영근(1988) 『남북한의 언어 얼마나 달라졌나』 민족지성 29, 민족지성사.
- _____ (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_____ (2000)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亦樂.
- 곽충구 (1994) 『威北六鎮方言의 音韻論』 국어학 총서 20, 태학사.
- 국어연구소(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고유어편Ⅱ』, 금성문화사.
- 김경환(2004) 『음운의 변화와 표기』, 보고서.
- 김민수(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 『우리어문연구』 특집, 남북한 어문규범과 그 통일 방안.
- _____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 김병운(2000) 「중국조선족의 언어이질 현상과 그 발전적 추세」 - 『어문연구』 33
- 김소동, 최희수, 이은규(2003) 「중국 조선족 언어연구」 -韓國傳統文化研究 제 9기.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홍식(1998) 「中國의 朝鮮語文敎育과 그 政策의 變遷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朴甲注(1997) 「중국의 조선말과 남, 북한어의 비교」 -이중 언어학회지 제 14 호.
- 박경진(1995) 「남북한 표기법의 연구」 - 중앙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선(2001) 『고어사전』 (낙선재 필사본 번역고소설을 중심으로), 이회.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새로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 편집부 엮음, 북피아.
- 서영섭(1990) 「중국에서의 조선어 사용현황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 - 『이중 언어학』 제 7호, 이중 언어학회.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국어학 총서 43, 국어학회.
- 신지영,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국어음운론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심련화(2002) 「중국조선어에서의 외래어와 한국어에서의 외래어 비교 연구」 -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광호, 한재영 · 장소원(1998) 『국어정서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이명규(1982) 「近代國語의 音韻現象에 관한 研究」 - 人文論叢3, 한양대학교.
- 안옥규(1994) 『우리말의 뿌리』, 학민사.
- 이익섭(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홍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 『새국어생활』, 제 6권 제 4호, 국립국어원.
- 원영섭(2000) 『바른 띄어쓰기 맞춤법』, 세창출판사.
- 장흥권(1983) 「우리 말의 외래어에 대하여」 - 『조선어의 학습과 연구』 제 2기,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 전병선(1990) 「중국 연변조선족의 이중 언어의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 『이중 언어학』 제 7호, 이중언어학회.
- 중국조선어 사정위원회 (1996) 『조선말실용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최병선 (1998) 『중세국어의 음절과 모음체계』, 박이정.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박이정.
- 최윤갑(1994) 『중국 조선 한국 조선어차이연구』, 한국문화사.
- _____ (1990)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변화」 - 『이중 언어학』 제 7호, 이중언어학회.

최희수(2005) 「중국조선어의 과거와 미래」 - 한국 언어문화회 제 46회 학술 대회
자료집, 한국 언어문화회.

한용운, 정상훈 (2004)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허동진(1998) 『조선어학사』, 한글학회.

홍기문 (1999) 『조선어 력사 문법』, 한국문화사.

홍운표, 송기중, 종광, 송철의 (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 전

남광우(1997) 『고어사전』, 교학사.

박수강 외 (1996) 『조선말사전』, 연변교육출판사.

박재연(2001) 『고어사전』 - 낙선재 필사본 번역고소설을 중심으로, 이회.

연변언어연구소(1992~1995) 『조선말사전(1,2,3)』, 연변인민 출판사.

『우리말 큰사전』 (1992) 한글학회, 어문각.

이희승(1998) 『국어대사전』, 민중사.

『조선말 대사전』 (1992)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동광출판사.

홍운표·송기중·정광·송철의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두산동아.

옛 문헌 자료

『家禮諺解』(朝鮮 仁祖 10年. 1632)

『敬信錄諺解』(朝鮮 高宗 17年. 1880)

『癸丑日記』(朝鮮 宣祖)

『金剛經三家解』(朝鮮 成宗 13年. 1482)
『金剛經諺解』(朝鮮 世祖 10年. 1464)
『老乞大諺解』(朝鮮 顯宗 11年. 1670)
『老朴集覽』(朝鮮 中宗 10년? 1515?)
『論語諺解』(朝鮮 宣祖 21년. 1588)
『楞嚴經諺解』(朝鮮 世祖 7年 . 1461)
『東國新續三綱行實圖』(朝鮮 光海君 9년. 1617)
『同文類解』(朝鮮 英祖 24年. 1748)
『杜詩諺解』(朝鮮 成宗 12年. 1481)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朝鮮 世祖)
『蒙語老乞大』(朝鮮 英祖 17年. 1741)
『朴通事諺解』(朝鮮 肅宗 3年. 1677)
『翻譯朴通事』(朝鮮 中宗 10年? 1515년)
『三綱行實圖』(朝鮮 成宗 12年. 1481)
『釋譜詳節』(朝鮮 世宗 31년. 1449)
『十九史略諺解』(朝鮮 英祖 48年. 1772)
『兒學編』(朝鮮 純宗 2年. 1908)
『樂章歌詞』(朝鮮 中宗)
『語錄解』(朝鮮 孝宗 8年. 1577)
『御製內訓』(朝鮮 英祖 13年. 1736)
『譯語類解補』(朝鮮 英祖 15年. 1775)
『五倫行實圖』(朝鮮 正祖 21年. 1792)
『五倫全備諺解』(朝鮮 1721)
『重刊杜詩諺解』(朝鮮 仁祖 10年 . 1632)
『青丘永言』(1948)
『閑中錄』(朝鮮 正祖 19年 1795)

『漢清文鑑』(1770)

『訓蒙字會』(朝鮮 中宗 22년. 1527)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5780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김향란 한문 : 金香蘭 영문 : Xianglan Jin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연락처	E-mail : jinxianglan7@hotmail.com				
논문제 목	한글: 중국 조선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의 차이 연구 영문: A Study of Spelling Differences between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07년 02월

저작자: 김향란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